

可召留出



제주의 대표 신문 **ihalla.**com

기사제보 750-2214 | 구독 750-2314 | 광고 750-2828 | **2022년 12월 19일 월요일**(음력 11월 26일)



온섬이 '꽁꽁' ··· 폭설 쏟아지는 제주국제공항 18일 제주전역에 한파가 몰아닥친 가운데 활주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주국제공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.

강희만기자

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 도의회 문턱 넘을까

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 돌입 19~23일 닷새간 제2회 제주도 추경안 등 심사 송악산유원지 동의안·수도급수조례안 등 주목

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후보 시절 공 약인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제 주도정 첫 조직 개편안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공무원사회 등에서 비판 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해당 조 직 개편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아진다.

제주도의회는 19일 마지막 회기 인 제412회 임시회를 열고 23일까 지 닷새간 제2회 제주도 추경예산 안 등을 심사한다.

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 개편안과 는 것으로 해당 조례가 가결될 경

관련된 '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.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에 '노동 정 책 전담부서'설치가 포함되지 않 으면서 공무원사회 안팎으로 비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 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 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.

> 또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 주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. 해당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 요금을 감면하기 위해 추진되

우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2만2600여 가구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이와 함께 최근 제주도가 서귀포 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매입한다고 밝 힌 가운데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'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 본합의서 체결 동의안'등에 대한 심사도 이뤄진다. 하지만 매입 대 상 토지에 대한 토지 매입대금은 감정평가가 이뤄져야 나올 계획이 지만, 주변 토지 시세를 고려하면 매입 대금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송곳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.

아울러 환도위는 '제주도 도시계 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도 심사한

다. 그동안 건축행위 규제 등 재산 권 침해와 상위법령 위반 등의 논 란이 일었던 도시계획조례를 손본 일부개정안의 통과 여부에도 관심 이 집중된다.

제주도, 도 교육청이 제출한 제2 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

제주도의 올해 최종 예산은 기정 예산(7조2432억원)보다 5451억원 (7.5%) 증가한 총 7조7883억원 규모 로 편성됐다.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3701억원(6.1%) 증가한 6조4785 억원, 특별회계는 1750억원 (15.4%)이 늘어난 1조3098억원이다.

제주도교육청의 제2회 교육비특 별회계 세입・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은 기정예산 1조6524억원보다 5716 억원 증가한 총 1조7095억원 규모 로 편성됐다. 이태윤기자

제주-홍콩 직항노선 내년 1월 재개

중국, 방역완화 등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선회 도, 홍콩 관광국 등 현지와 협력체계 구축 완료

제주와 홍콩을 잇는 직항노선이 내 년 초 재개될 전망이다.

1월 22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뜻을 모았다. 18일 밝혔다.

이 위드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, 홍콩도 해외 입국자를 대 상으로 시행해오던 의무 격리를 폐 지하는 등 방역 정책이 대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.

이에 도는 홍콩 관광국, 한국관 광공사 홍콩지사 등과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.

제주도는 내년 제주-홍콩 직항 노선 재개에 맞춰 홍콩 관광국, 한 국관광공사 홍콩지사 등과 제주 관 광 자원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.

홍콩 관광국과는 공동 관광 마케 팅을 추진하고, 마이스 분야 통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와 홍콩 공유, 제주올레길 및 홍콩 하이킹 을 오가는 직항노선이 이르면 내년 코스 교류 등의 협력에 나서기로

홍콩 관광국 관계자는 "제주는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아름다운 자연환경 및 한국 드라마 촬영지로 홍콩에서 많이 알려져 있 어 인기가 많은 곳"이라며 "직항노 선 재개시 더 많은 홍콩 관광객들 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 다"고 말했다.

> 또한 홍콩 관광국과 박람회, 설 명회 시 상호 협력을 위한 초청 교 류에도 의견을 함께했다.

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를 방문 한 자리에서 제주 관광상품 개발, 마이스 관광객 유치, 공동 마케팅 추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.

이태윤기자 Ity9456@ihalla.com

재난 예·경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완료

도, 60곳 신규 장비 교체·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

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한해 재난발 자동 송출되도록 했다. 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재난상황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 재난상황에 대비해 민방위경보 난 한 예·경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청지역(2개소)에 민방위 경보시설 마무리했다.

제주도는 태풍, 집중호우 등 재 해발생 예상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를 위해 60개소 노후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신규 장비로 교체했으며, 24시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통 신망을 유선/무선(LTE) 이중화로 양광→한전전력)했다.

또한 기상청의 실시간 지진 발생 정보를 알리기 위해 도내에서 운영 중인 280개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과 연계해 제주지역 내 지상 규모 3.0 이상, 해상 규모 3.5 이상 지진 이 발생하면 대피음성 경보방송이

적의 공습 등 민방공사태와 각종 을 확충하고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에 대한 교체(4개소)를 완료했다.

재해위험지역 6개소에 대한 수 위·강우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하천범람 등 재난상황에 신속 하게 대처하기 위해 행정시 재해위 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구성하고 전원공급방식을 개선(태 과 연계해 도 재난안전상황실에 조 기경보 통합 상황관리시스템을 구

고대로기자 bigoad@ihalla.com



